새로운 길

집과 희망을 다시 세우다

2021년 10월 29일, 서머셋(Somerset)과 도체스터(Dorchester) 카운티는 메릴랜드에서 지난 50년간 가장 심각한 해일 피해를 겪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물 수위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와 맞먹거나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홍수는 생존자들에게 즉각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의 위협을 초래하였고, 가정에 또한 큰 피해를 입습니다. 만조로 밀려든 만(灣)의 물은 각종 오염물을 실어 날랐고, 집 안의 배관과 전기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곰팡이와 습기가 쉽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을 남겼습니다.

2021년의 폭풍은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았고 연방 기관에서도 재난으로 선포하지 않아, 언론 보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폭풍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생존자들이 회복을 위해 어떤 도움과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더더욱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때 Eastern Shore 장기복구위원회(Eastern Shore Long-Term Recovery Committee, ESLTRC)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조직된 ESLTRC는 2021년 그들에게 다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재가동하였고 생존자들을 돕는 일에 발 빠르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1단계(파괴된 10가구 재건) 이후, ESLTRC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생존자의 가정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2024년 봄, Week of Compassion은 ESLTRC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 ESLTRC의 재난복구 코디네이터 급여가 지원되었으며, 이들은 2단계 사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조수 피해 복구 및 예방 프로젝트로, 2021년 홍수로 피해를 입고 앞으로도 반복적인 홍수 위험이 있는 서머셋(Somerset)과 도체스터

이 이야기는 2025년 3월 처음 공유되었습니다. 최근 Week of Compassion 파트너 방문 시 추가된 세부 내용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특별 헌금 주제 영상 “A NEW WAY”를 확인해 보세요!

(Dorchester) 카운티의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각 주택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 기초를 높이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반복 피해의 위험을 줄이며, 맡겨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존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가난한 두 카운티인 도체스터(Dorchester)와 서머셋(Somerset) 주민들은 주로 HUD 소유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크리스필드(Crisfield, 서머셋 카운티) 주민의 거의 절반이 지원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ESLTRC는 3단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3단계는 크리스필드 시와 협력하여 방치된 부지에 새 서민용 주택을 건설하고, 새로운 주택 소유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크리스필드 시장인 달린 테일러(Darlene Taylor)는 지난 10년간 관계를 쌓아온 덕분에 이 다단계 접근 방식이 가능해졌음을 기쁘게 평가하며, "이런 일들은 오직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폭풍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집을 단순히 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주택을 들어 올려 향후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주목을 받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의 지지도 얻고 있습니다. Eastern Shore 주민들은 장기 복구 노력과 중요한 재해 예방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기후 취약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Week of Compassion과 우리의 파트너,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 노력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Eastern Shore와 같이 기후로 인해 취약한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일은, 교파를 초월한 파트너들과 지역 리더들에게 중요한 공동 과제이자 우선순위입니다.

테일러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ESLTRC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신뢰 관계를 쌓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은 종종 소외되기 마련이지만, ESLTRC가 특히 잘하는 일 중 하나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새로운 신뢰의 모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Week of Compassion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교파를 초월한 연대와 지역사회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 (**A NEW WAY**)"을 찾아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 생존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Week of Compassion

WeekofCompassion.org

2026 특별 헌금
2월 15일 – 22일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Disciples of Christ)의 구호·난민·개발 사역 기금인 Week of Compassion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고통을 완화하는 사역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고통을 희망과 회복으로 바꾸어 가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